

■ 서평

제주민요 연구와 이해를 위한 기본 이론서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민속원)

변성구*

1.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한 분야를 끊임없이 천착(穿鑿)하고, 그 결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까. 특히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야 말해 무엇하랴! 그것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자랑거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더욱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현지(玄旨) 김영돈을 만나게 된다.

김영돈은 1933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제주대 및 동국대에서 석·박사학위과정(문학박사)을 마쳤다. 오현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는 사이 박물관장·탐라문화연구소장·교육대학원장 등을 지냈고, 제주도교육위원, 제주학회장,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관광부 문화재감정위원, 민요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 『제주도민요연구(하)』(민속원, 2002) 등 민요와 민속 관련 다수의 논저를 남겼다.

그 중 『제주도민요연구(하)』(이론편)는 생애의 마지막 역작으로 손꼽을만하다. 자료편인 『제주도민요연구(상)』이 나온 지 어언 37년만의 일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다. 이 책은 제주민요 연구의 결정체이자 민요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라 할만하다. 저자가 세상을 뜨기 전 2001년 8월 15일 일러두기를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완수했으나, 생전에 발간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니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제주민요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남겨놓으셨기에 제주민요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김영돈은 제주민요를 이해하는 데 총괄적인 단행본이 없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마지막 소명의식을 앞세워 이 책을 펴낸다고 일러두기에 발간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을 꾸미면서 민요 전공자들이 활용할 만한 학술적 깊이를 바탕에 깔면서도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했으며, 향토문화 교육에도 소중하게 이바지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제주민요 연구의 기본 이론서라고 할만한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조사한 민요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높이 평가할만하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도의 민요를 직접 조사하고, 현대어석까지 붙여서 『제주도민요연구(상)』을 펴낸 저자의 민요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제주도민요연구(하)』를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된다.

2.

『제주도민요연구(하)』의 머리말은 조동일 교수(서울대)가 썼는데, 학문적 감화를 받은 일화를 중심으로 김영돈의 민요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머리말의 첫 부분은 이렇다.

올해 고회를 맞이한 김영돈 교수가 학문에 종사한 지 수십 년 동안 내놓

은 연구 업적은 참으로 풍성하다. 제주도의 민요와 민속을 살살이 조사하고 치밀하게 연구한 성과가 대단해 세상을 크게 깨우치고 후학을 위해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누구나 지닌 고장을 자랑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소박한 심정을 학문연구를 통해 한껏 고양시켜, 제주도에서 전승하고 있는 구비문학 자료가 문학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가 유감없이 입증하고, 전국 도처의 동학들이 제주도를 동경하게 했다. 불편한 거동,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남다른 노력을 한 결과 이처럼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룩했다.

조동일 교수는 서울대학 국문학과 3학년 학생 시절 이승녕, 이기문 교수가 인솔하는 학과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땅을 밟으면서 김영돈 교수를 처음 대면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1965년에 『제주도민요연구(상)』이 출간되면서 학문적 감화를 받고 『서사민요연구』와 『경북민요』를 내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하)』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민요의 의의와 한국민요의 연구사를 정리한 것으로 민요의 일반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장부터 제14장까지는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물들이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제주민요의 배경·특징·분류를,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맺들·방아노래, 해녀노래, 오돌또기 기타를, 제8장부터 제11장까지는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어머니 사랑·돌·서울·도민의식을 다루었고, 이어서 제12장부터 제14장까지는 제주민요와 속담과의 교류, 제주민요의 문학성, 제주민요에 드러난 이여도를 실고 있다.

저자는 제1장에서 민요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민요에 대한 막연한 규명으로는 민요의 속성을 어렵히 밝히기엔 미흡하므로 민요가 지니는 성격을 뚜렷이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민요의 개념을 “서민들에 따라 형성·발전·향유되는 가락과 기능이 융화된 노래로서 서민생활 전반과 직결되는 가장 서민적인 구전문학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가락 위주이면서 사실과 기능이 함께 따른다는 점이 설화·속담 등과 판별되는 민요의 속성”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민요가 지닌 기능적, 민중적, 지역적, 자족적인 속성을 밝히고, 우리 나라 민요 사설의 주제와 민요의 분류 방법, 동요에 대해 개괄한 다음 한국민요연구의 흐름이란 항목을 두어 민요연구사를 정리해 놓았다. 특히 민요의 사설에 초점을 맞춘 연구물을 중심으로 광복 이후 1994년까지 이루어진 한국민요 연구의 성과를 간추리고 있다. 광복 이전의 경우는 “이렇다할 방법론이 없이 민요의 사설을 소박하게 논의하거나 민요의 값어치를 이해하는 데 머물렀기에 다루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자는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를 한국민요론의 체계를 처음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임동권에 대해서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의 발간뿐만 아니라 민요학계의 대들보로서 많은 후진을 키웠다는 점에서 “한국민요학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드높이 기릴 만하다”고 했다. 1960년대 이후 자료의 충실한 조사 방법과 그 분석 방법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민요학자들이 절감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조동일의 서사민요와 경북민요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새로운 연구방법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1979년부터 시작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의 발간을 체계 있는 방법론이 바탕에 깔렸다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민요대계』의 출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저자는 1980년대를 한국민요 연구가 상당 수준 진척되어 가는데 중요한 고비를 이룬 시기라고 평가한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민요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한 요종의 민요를 심층적인 방법으로 실상을 파헤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선평의 강릉지방 민요, 서원섭의 울릉도 민요, 김영돈의 제주도 밧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 나승만의 전남 들노래, 김연갑·김열규·강동학·박민일·진용선 등의 아리랑, 좌혜경의 제주도 동요, 이창식의 유희요, 신찬균의 만가, 류종목의 의식요 연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에 대해서도 한국민요의 총체적인 발굴과 녹음·보존을 목표로 민요의 음반 제작·배포와 이에 따른 해설집 간행으로 민요학계에 크게 이바지했

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한국민요학회, 민요학회, 한국농요보존회, 민요연구회,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등 민요 연구 단체의 연구발표회, 공연행사, 학회지 발간 등의 활동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1장은 한국민요의 일반론과 연구사를 개관한 것으로 이 책의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제2장부터는 저자가 평생 작업해온 제주민요 연구 결과를 집성하고 있다. 제2장 제주민요의 배경에서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자연환경, 산업, 역사 등을 통해 제주민요의 형성 배경을 분석하였고, 제3장 제주민요의 특징에서는 “제주가 민요의 보고라고 할만큼 진중한 민요가 슬해서 그 가락으로나 사설로 보아 매우 빼어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민요의 분포와 실상, 의식요 전승 실태, 창민요, 제주민요 사설의 문학성 등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제4장 제주민요의 분류에서는 민요 연구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고정옥, 임동권, 조동일, 박경수 등의 민요 분류법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 위주의 분류에다 내용에 따른 부차적인 분류법을 제안하고, 실제로 제주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창민요, 동요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제5장부터는 제주민요 중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노래로 평가되는 것들을 한 요종씩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모아, 요종별 연구의 전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맷돌·방아노래의 배경, 전승·전승자, 창법, 제재를, 제6장에서는 해녀노래의 배경·분포, 전승·전승자, 창법, 기능·제재, 내용, 표현을 다루었고, 제7장에서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멀치후리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정의고을 민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8장부터 11장까지는 저자의 『제주도민요연구(상)』에 수록된 제주민요 전반을 대상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제주도민의 의식과 삶의 양상을 파악한 논문들이다. 제8장에서는 제주민요, 특히 여성 노동요의 대표격인 맷돌·방아노래에 드러난 어머니 사랑을, 제9장에서는 제주도가 삼다(三

多), 특히 석다(石多)의 섬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제주민요 사설에 등장하는 돌의 의미를 살폈다. 제10장에서는 제주민요에 드러난 제주도민들의 서울에 대한 선망과 꿈을 분석하였고, 제11장에서는 제주민요에 드러난 도민의식으로 자강불패(自疆不敗)의 의식을 도출해 내었다.

제12장에서는 제주민요와 속담과의 교류 실태를 살핀 다음, 속담과 교류되는 제주민요를 제재별로 분석하였으며, 제13장에서는 한국문학 내지 제주문학의 한 갈래로서 제주민요의 문학성을 맺들·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 제14장에서는 제주도민들이 꾸며낸 실재하지 않은 섬 '이여도'에 대해 민요 사실과 설화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14장은 민요만이 아니라 설화를 함께 다루었기에 마지막에 배치한 듯 싶다. 필자가 보건대 이 책의 결론적 성격의 글은 오히려 제13장 '제주민요의 문학성'이라고 할만하다. 저자는 이 글 맺는 말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모든 구전문학과 더불어 엄연한 문학이요, 따라서 제주민요는 한국문학 내지 제주문학의 한 갈래라는 인식에서 논의를 전개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이제까지'란 어휘가 주는 어감은 한편의 논문이 아니라 평생의 민요 연구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리고 사실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주문학 내지 한국문학의 지평도 훨씬 트이리라고 기대된다"는 마무리는 저자가 추구해온 민요 연구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고 있다.

3.

김영돈은 이 한 권의 책에 평생 작업으로 삼은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한데 뭉뚱그려놓았다. 그와 동시에 민요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놓고 있다.

“국내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한다 하더라도 제주민요 사설의 문학적성은 인정할 만하다. 이를 분석, 입증하려면 제주민요의 전반에 대한 총체적·입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한국문학 가운데 제주민요 사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육중한 사실도 분명히 확인될 터인데, 이 글에서는 이런 면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이 글이 지닌 한계가 있다.” (제13장 제주민요의 문학적성, 461쪽)

그리고 저자는 “제주민요 사설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으므로 결론지어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을 덧붙여 학자적 양심을 피력해 놓고 있다.

저자는 민족적 차원의 과제로 우선 민요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규모 이상의 민족적 민요 수집 운동이 시급하고, 다음에는 바람직한 연구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제주민요를 연구해온 저자는 제주민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한 결과, “제주민요의 사설은 제주문학의 소중한 한 갈래이면서 한국문학에도 귀중한 자산으로 자래매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민요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사설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과제로 남기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외 민요와의 다각적인 비교연구도 충실히 전개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요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제주민요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1년 제주대학 국어교육과 4학년 때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서 행해진 학술조사에서 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부터이다. 그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9-3(서귀포 남제주군편)과 『한국민속음악』(제주도편), MBC 특별기획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 민요학회의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면서 제주민요의 조사와 사설 채록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우젯소리,

해녀노래, 밭밟는 노래 등 제주민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해 왔지만 저자가 지닌 민요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따를 수 없었음인지 후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해 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민요학계에서 제주민요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고 본다. 그리고 민요학계의 후학들에게 학문적 감화를 주면서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겨놓았다. 이런 점에서 조동일 교수가 머리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저서는 앞으로 민요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만하며, 제주민요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론서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